

# 文, 국정교과서 폐지 · 임 행진곡 제창 지시

##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 보인 것”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2018년부터 적용예정인 국·검정 혼용체제를 검정체제로 전환하도록 즉각 수정 고시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검정교과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 사항을 점검해 조치할 것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국정교과서를 적폐 청산 대상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약속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교육의 상징”이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보훈처에 5·18 기념식 당일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해 부르라는 업무 지시도 내렸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 2008년까지 정부 주관 5·18 기념식에서 참석자 전부가



비정규직 건의 듣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 참석하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건의하며 눈물을 닦는 참석자를 보고 있다.

일어서서 부르는 ‘제창’으로 불렀다. 그러나 이후에는 합창단의 식전 행사로 바뀌면서 참석자 중 희망자만 따라 부르는 ‘합

창’으로 변경돼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논란이 일고 있다.

문 수석은 “이는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그 정신이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

## 조국 “두들겨 맞으며 가겠다”



조국 신임 민정수석은 12일 “여기지기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고심 끝에 민정수석직을 수락했다. 능력 부족이지만 최대한 해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정수석) 마치고 학교로 돌아올 때까지 폐북을 접는다. 메시지에 대한 답도 불가능하다. 널리 양해 구한다. 다들 건강, 건승하십시오”라고 썼다.

조 수석은 한인섭 서훈 등 의혹제기에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조 수석은 페이스북을 접는다는 글과 달리 자신을 향한 의혹을 반박하고 지지하는 지인과 기사를 잇따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우선 조 수석은 한인섭 서훈에 교수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글을 올렸다.

조 수석은 “조국 모친 응동학원이 사학재벌? 1년 예산 78만원에 불과? 라는 기사도 공유했다. 이 기사는 조 수석의 모친이 일부러 세금을 체납한 것이 아니라 주장 담고 있다.

그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약 조국 수석이 문 후보 곁에 없었다면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을까? 민정수석으로 성공을 기원한다”고 적은 글도 공유했다. /뉴스

# 국민의당 원내대표 3파전 ‘김동철 · 유성엽 · 김관영’

## 누가 되더라도 ‘강한 야당’ 행보 펼쳐질 듯... ‘총리 지명 전 의견 청취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오는 16일 치러지는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 경선이 광주지역 4인인 김동철 의원과 각각 전북지역 3인, 재선인 유성엽 의원, 김관영 의원의 3파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출마가 거론됐던 주승용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공개석상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고, 장병완 의원도 출마를 고사했다. 장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일단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장 임기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의 경우 비례대표지만 전북에 연고성 둔 박주현 의원을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택했다. 당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표를 끌어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김관영 의원은 수도권 이인주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삼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호남과 수도권의 조화에 초점을 두고 젊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어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철 의원은 당초 주승용 대표의 재출마를 염두에 두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다가, 주 대행이 불출마 의사를 굳히면서



김동철 의원

가장 늦게 출마를 결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주 대행이 (임기가 짧아)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을 못 하고 있었다”며 “어젯밤(11일) 늦게 전화가 와서 만났더니 양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누가 원내대표가 되더라도 문재인 정부를 향한 ‘강한 야당’ 행보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당장 아니던 국무총리 내정자 발표 절차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정무회의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뉴시스와 통화에서



김관영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원 참배가 끝나고 제일 먼저 야당을 찾아서 협치, 통합을 강조했는데 이 내정자에 대해 사전협의는 고사하고 사전 통보도 없이 (발표가) 이뤄졌다”며 “달로만 협치 아닌가.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분을 선택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관영 의원 역시 전날 출마선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선 과정에서 저희에게 그 어떤 귀벨조차 해주지 않았다”며 “이것이 과연 협치의 길로 나아가는 건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했다.

김동철 의원은 통화에서 “협치를 이야기 하면서 (문 대통령이) 각 당을 찾아왔는데,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총리 지명을 앞두고 이렇게 정했는데 당의 의견은 어떠한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른바 ‘제이노믹스’의 첫 시험

대가 될 일자리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핵심 공약인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단계적 시행을 위해 추경예산 10조원 편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다른 당 원내지도부의 협조가 절실하다.

유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정책은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경제를 더 나쁘게 해서 궁극적으로 실업률을 더 높이는 잘못된 경제정책”이라며 “거기에 대해선 아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관영 의원 역시 통화에서 “국가재정법에 나와 있는 추경의 요건에 저는 지금 경제상황이 해당이 안 된다고 본다”며 “공공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지나치게 재정건정성만 악화시키고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 중에선 하책 중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철 의원은 “우리당이 문 대통령의 공약 중 일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 중 하나가 일자리 공약”이라며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을 우리가 엄청나게 비판했다.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했다. /뉴스

## 도의회 문건위, 새만금 상설공연장 현장점검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2일 새만금 상설공연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올해 전북투어패스의 대표적인 공연관광 상품으로 아쉽게 준비한 아리울스토리 제3탄인 ‘해적’에 대해 관광 상품으로서 제대로 구성됐는지 확인하고 아리울 예술창고 현장 점검 차원에서 마련됐다.

위원들은 현재 새만금 상설공연은 주변 인프라 부족과 접근성 취약 등의 한계로 수익률을 높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순수 공연예술은 투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으므로 단순한 경제논리로 사업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인재용 기자

## 도의회 환복위, 고군산군도 식수원 개발현장 점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2일 선유도 등 고군산군도를 직접 방문해 식수원 개발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최근 급증하는 쓰레기 처리실태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이날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건설사업과 동시에 진행 중인 광역상수관로 설치공사와 신시도 배수지, 가압장 신축 공사현장 등을 살펴봤다.

이어 섬 지역 내 쓰레기 집하장 등을 둘러보면서 정기 수거체계 및 종량제 운영실태 등을 확인했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 개통 이후 관광객이 몰리면서 쓰레기 양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고군산군도가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인재용 기자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천라북도!

#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 2017 WTF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MUJU

2017. 6.24.(토)-30.(금)  
전북 무주 태권도원

세계는 무주 태권도원으로  
태권도로 하나되는 지구촌  
One World, One Taekwondo at Taekwondowon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주관: 무주태권도원  
후원: (주)KPNP, KFA, Kwanju Bank, JB Woori Capital, ASIANA AIRLINES